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구약신학, 2차시, 창조주로서의 신

© 2024 Tiberius Rata 및 Ted Hildebrandt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창조주로서의 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태초에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먼저 자신을 창조주 신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말을 쓸 때, 그는 진공 상태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쓸 당시의 널리 퍼진 이야기 중 하나는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그리고 에누마 엘리시는 그저 높은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이전의 가장 유명한 고대 근동 이야기로, 수메르-아카드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르두크가 바빌론의 최고신이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마르두크는 신들 사이에서 우월성을 얻고자 하며, 티아마트와 싸웁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반으로 자르고, 상체에서 하늘을 만들고, 하체에서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누마 엘리시에서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또한 하급 신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큰 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하급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급 신들, 즉 하급 신들은 관개 수로를 파는 일을 맡았고,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항했고, 그것이 인류의 창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창조 이야기가 진공 상태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소위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창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 중 하나에서, Noom은 도예 바퀴에 앉아 그 위에 인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을 만든 후, 그는 그에게 생명을 줄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이리 와. 아내가 와서 인간에게 생명을 낳아.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다른 신들과 난교를 벌이고, 그 결합의 결과로 인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소위 창조 이야기에는 혼란스럽고 부도덕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매우, 매우 질서정연합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 당시에 쓰이던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세가 에누마 엘리시나 다른 책, 예를 들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따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그 당시와 그 장소에서 쓰이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표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면에서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 글을 쓰게 하신 것은 모세가 창조 당시에 분명히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 글을 쓰게 하셨을 때, 모세는 매우 질서 있는 기록을 씁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신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존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시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누가 창조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에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류의 창조와 안식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서론적 요약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가 태초에 창조했을 때, 누가 창조했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가르쳐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두 개의 반대말이 전체를 나타내는 merism 이라고 불리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주님, 제가 앉을 때와 일어날 때를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반대말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무엇을 아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블 망원경이 새로운 은하계를 발견했을 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약 진술입니다.

그리고 1:2에서 당신은 창조의 첫 날을 보게 됩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우리는 하나님, 영이 창조 때에도 함께 계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은 하나님 아들이 창조 때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들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 시대에 뒤따르는 것은 어떤 이들이 프레임워크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형태 없는 것을 형성하시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매우 질서 있는 창조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고, 공기와 바다, 셋째 날에는 땅, 태양, 달, 별은 넷째 날에만 나타났습니다. 글썄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 달, 별이 있는 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태양, 달, 별 없이 빛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살펴보면 태양, 달, 별 없이도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런 다음 5일째에는 공중과 바다 생물이 있고 6일째에는 육지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에필로그와 안식일의 창조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누마 엘리시에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거나 신들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네 번째 계명에서도, 다시 한번, 같은 것이 안식일의 날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창조의 날들에서 일관된 패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있으라, 그것이 명령이고 성취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신은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썄요, 성경은 누가 그것을 창조했는지만 가르쳐 줄 뿐, 그가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렇다면 질문은, 왜 우리에게 시간적 틀이 있는가요?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습니다.

글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글썄요, 왜? 하느님은 우리가 누가 창조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워크 가설은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 에 근거하는데, 거기서는 땅이 형태 없고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게 바로 신이 창조의 날에 하는 일이에요. 그는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무형을 형성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공허함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발전시켜서, 글썄요, 보세요, 이것은

단지 문학적 기법일 뿐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질문은, 왜 둘 다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을 문자
그대로의 날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문제는, 이 우리가 누구인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몇 가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 즉 세상의 마르두크와 다른 신들, 즉 바알과
아세로트 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아니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은 다른
창조물에게, 야, 우리 모두 모여서 함께 이걸 창조하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존칭 복수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영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언어에서 당신이라고 말할 때, 단수형은 you이고,
복수형이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you입니다. 일종의 존칭 복수형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다른 언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자기 숙고의 복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삼위일체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삼위일체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발전된 성경적 신학적 개념입니다. 창세기에서 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안하듯이, 당신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에 대해 말하는 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텍스트에서 증명되거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라디오에서 한 번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을 누군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3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요, 히브리 학생 한 명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삼위일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서 되돌아보면, 삼위일체가 창조에 관여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예를 들어 욥기에서처럼 천상의 법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은 서로 다른 가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라틴어로는 Imago Dei인데, 교회와 교부들에게서 특히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 그것은 심신적 통일성입니다. 즉, 정신과 신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압니다. 그것은 신이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은 영이며, 무한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많은 것을 창조하자고 말할 때, 그것은 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인간을 충실하고 적절한 표상, 즉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동물과 다르게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동물은 본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이성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과 영적인 존재의 차이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은 본능으로 창조되었지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은 비버에게 댐을 만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비버가 더 나은 댐을 만드는 방법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도덕적 존재인 우리는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압니다. 저는 감옥 시스템에서 구약과 윤리를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아시다시피, 감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개나 고양이를 위한 감옥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글썄요, 그들은 도덕적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책임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적인 존재, 태초부터의 신은 아담과 이브와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존재이며 권위의 대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당시에 왕이 넓은 영토를 다스렸다면 당연히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상을 담은 조각상을 세운 다음 제국 전역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여기 누가 왕이야?라고 물으면, 여기 왕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매우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해요.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해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창조했습니다. 지금 수업에서 이 매우 기본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 즉 거짓말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는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신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능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선하며, 좋은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이 선, 선, 선, 매우 선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진술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신이 자신의 창조물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연을 초월합니다. Enuma Elish에서 신들은 창조물의 일부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신은 창조물 위에 있습니다. 그는 창조물을 질서와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신은 자연을 초월합니다.

그는 생명과 모든 창조물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입니다. 신은 그저 창조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그의 창조에 매우 깊이 관여하는데, 우리가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특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아담의 종족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단지 화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아담이 전 세계에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 신의 형상이 인간에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질문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아담 중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바울은 예수가 아담의 종족을 위해 죽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연은 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신이 창조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경배받아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과 피조물을 경배했습니다.

신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창조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그것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6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말하는 골로새서 구절이 있습니다.

창조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에 관해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곧 왕좌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것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를 통해,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성경에는 창조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신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성경과 창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둘 다 보고 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있는 전부입니다. 어거스틴이 일반 계시라고 부른 것에 대해 말하는 고전적인 텍스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퀴나스가 취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을 계속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18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니, 이는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합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창조된 것들에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분명히 보여졌으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창조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식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요한은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에 의존합니다. 그러니 더 나은 방법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결국 요한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종류의 창조일까요? 창세기 본문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틴어 *fiat creationism*,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yom* 이라는 단어는 숫자 형용사로 변형될 때마다 항상 24시간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는 표현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경의 내적 증거가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인데,

십계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날 동안은 수고하여 네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여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여섯 날 동안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 나오는 무리의 일원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처음 듣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6일 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6일 전과 다르게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다윗 시대에 살았다면, 6일 외에 다른 것을 이해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예수 시대에 살았다면, 6일을 제외한 다른 것을 이해했을까요? 그러니 아마도 19세기에 독일 신학자들이 마침내 빛을 보고, 그것이 실제로 6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다윈주의적 진화론 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 아니요,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실제로 진화 과정을 통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볼 때는 누가 창조했는지만 보아야지,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분자에서 인간으로의 유기적 또는 소진화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의 소진화를 모두 믿고 창세기 1장을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진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살펴보면, 제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는 100년 전 제 조상들보다 키가 큼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키가 큼니다. 그러니까 종 내에서의 진화는 항상 일어납니다.

하지만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면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 모델은 다시 말하지만, 소위 과학계를 달래고, 보세요, 다윈이 옳고, 성경이 옳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맞게 만들어 봅시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성경적 설명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가설은 일종의 진화론적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대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Yom은 시대 또는 불확정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Yom이 그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면 Yom은 24시간 기간을 의미할 수 있지만 불확정한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계정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이루어졌고, 그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곱째 날에 그가 한 모든 일에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창조된 하늘과 땅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창조 기록에서도 '날'이라는 단어는 긴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요엘 2장 1절은 주님의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날을 살펴보면, 그것이 24시간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시대 이론이 긴 기간을 허용하기 위해 여기에 적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문제 중 하나는

일 시대를 허용하면, 저녁과 아침이 있으므로 일 시대가 있다면 밤 시대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설명에 들어맞을까요? 그런 다음 창세기 1장에 대한 토론에서 다른 사람들은 1.1과 1.2 사이에 틈이 있다고 제안하는데,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후 땅이 형체 없고 공허한 사이에 대격변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토후 va vohu 는 형태가 없고 공허하며 예레미야서에서 어떤 종류의 심판 언어를 나타내기 위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과 1:2 사이에 무언가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갭 이론이라고 부르고, 또한 오랜 기간을 허용하고, 말하자면 오래된 지구 창조를 허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를 해석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을 스펙트럼에 두고 있으며, 우리는 문명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방식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다양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시작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구약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나머지 구약성경에는 창세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욥기가 언어적으로 볼 때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28장에는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지혜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23절부터 몇 구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 위치를 아십니다. 땅 끝까지 살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바람에 무게를 주고 물을 측정하여 분배하고 비를 위한 법령을 내리고 천둥 번개를 위한 길을 만드셨을 때, 그는 그것을 보고 선포하셨고, 그는 그것을 굳게 세우고 탐구하셨으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이해입니다. 여기

욥기에서 창세기의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기의 끝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약 70개의 질문이 있는 퀴즈를 주셨고, 욥이 퀴즈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욥의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해력이 있다면 말해 보라.

누가 그 치수를 정했나요? 알죠.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하게 쳤나요? 그는 자신이 창조한 질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섯째 날에 창조한 이 동물들의 위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베헤모스, 레비아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공룡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글썄요, 성경에 따르면, 공룡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만든 베헤모스,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는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보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권능은 배의 근육에 있다. 그는 꼬리를 삼나무처럼 뻗뻗하게 만들고 허벅지의 힘줄은 서로 얹혀 있다.

그의 뼈는 청동관이고 그의 팔다리는 철막대와 같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 중 첫 번째이다. 만든 이가 그를 칼에 가까이 데려오라.

산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모든 들짐승이 노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요점은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드러내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욥의 끝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마지막에 와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뵙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내 눈은 당신을 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멸시하고 먼지와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그분이신 분으로 볼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말해야 합니다. 화가 나다, 화가 나다,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멸시하고 먼지와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8편과 창세기 1장과 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오 주님, 우리 주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엄 있는지.

당신은 하늘 위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에서 당신은 땅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2절에서 확립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것은 창조 동사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바라만이 아닙니다.

창조하는 것인데, 그건 그렇고 오직 신만이 하시는 일이지만, 확립하는 것은 또 다른 창조 동사인 kun 또는 yatsar로 ,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창조 동사입니다. 당신의 하늘의 일, 당신의 손가락의 일, 달, 별들을 볼 때, 저는 당신이 창세기 1장과 이 모든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새와 양과 소와 짐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은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의 입의 숨결로 그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신이 존재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는 존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나라의 소위 창조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마르둑은 창조하기 위해 티아마트의 몸이 필요했습니다.

Noom은 창조하기 위해 점토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의 입의 숨결로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인식합니다.

시편 89편에는 야훼의 우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리니티에서 딕 아버벡 박사와 함께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시편 104편을 공부했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세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 중 일부는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부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홍수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창조 언어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경전에는 무신론자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신이 누구인지, 신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매우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 입으셨고, 빛과 옷으로 자신을 덮으셨으며, 천막처럼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다시, 창조 언어. 하나님께서 욥기, 시편, 잠언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잠언, 창조의 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창조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8장에 나오는 지혜, 지혜의 여인에 대한 부름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일의

시작, 곧 그의 옛적 행위의 첫 번째 때에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오래 전에 , 나는 땅의 시작 전에 처음에 세워졌습니다.

깊음이 없을 때에 내가 태어났다. 물이 넘치는 샘이 없을 때에, 산들이 형성되기 전에, 언덕들이 형성되기 전에, 땅과 그 밭을 만들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세상을 세우실 때에.

다시 말해서, 그는 같은 창조 동사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항상 이 창조, 창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창조주로서의 신의 진화를 살펴보세요. 모든 장르에 있습니다. 이사야에 이르면 신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이제 이사야가 신, 야훼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40장을 보면, 그는 보레 , 창조자, 창조하는 자입니다. 창조하는 바라, 보레 , 그것의 분사, 창조하는 자.

그러니까, 그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 25절에서 , 그는 21절에서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26절에서 창조하는 자입니다. 그는 인류를 돌봅니다. 인류를 돌보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늘을 창조하고 퍼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이다. 같은 신이다. 구원하시는 신은 창조하시는 신이고, 창조하시는 신은 구원하시는 신이다.

다시 그는 44:24에서 창조 언어를 사용합니다. 태중에서 너를 지으신 주 너의 구속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는 형성하시는 신입니다. 또 다른 창조의 구절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지 않았고, 디트로이트의 네 번째 공장처럼, 조립 라인에서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개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하나님을 통해 유일합니다. 48, 18.

이는 주, 보레 , 창조하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심이라. 그는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세우신 이시니라.

그는 그것을 비어 있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그것을 거주하게 하려고 지으셨느니라. 나는 주이니라.

그리고 다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안식일로 끝납니다. 바르트, 칼 바르트는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할 지혜를 주시지만, 그는 우리를 그의 안식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쉬는 거룩한 장소를 짓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은 장소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는 안식일을 만들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안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새롭고 다른 신을 갖게 될까요? 아니요.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신에 대해 말할 때 창조주 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모세가 당신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디자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알다시피,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인가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결혼이 있나요? 우리는 창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신, 창조주 신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같은 신입니다.

저는 앞서 로마서 1장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자연, 그의 영원한 능력, 그의 신성함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Creatio ex nihilo*, 무(無)로부터의 창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시편 33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자재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는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담이 먼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브가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진화론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창조에 도달하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진정시키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에게 복종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결론내렸어야 합니까? 그들은 이 사람이 신이라고 결론내렸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신이고, 이 사람이 창조주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주님.

다시 한번, 저는 콜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그는 태초로 돌아간다고 썼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는 창세기 1장과 명확하게 평행을 이룬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문제에 봉착하신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 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50년 전에 그것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 계시록에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니 당연히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구약은 신약에 없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 신이 그냥 창조했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신은 그저 창조주 신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유지자 신입니다. 신은 창조자 신입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창조자로서의 신입니다.